



[분양가 상한제 여파] 규제 前 분양막차 아파트 뜬다 03



Economy

코스피	1925.83 (-16.46)	코스닥	590.75 (-3.42)
금리 (미국 3년)	1.15 (-0.03)	환율 (원/달러)	1222.20 (+6.00)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 530조+ α 확장재정운용 기조 반영

당·정·청 日규제 대응 대책회의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13일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정책에 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 내에선 내년 예산을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2조원+알파(α)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시한 비공개 당정책회의 후 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대내외) 시급성을 반영해 예산은 보다 과감하게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책회의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도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내년도 예산을 530조원가량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만간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1조원

+ α'가 아닌 '2조원+ α' 방식으로 1~2년 차에 5조~7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 효과를 빨리 내고 차차 투입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윤 의원은 세수 문제에 대해선 "내년 세수 현황을 파악해 균형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확장적 예산운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 간사가 제시한 예산을 갖고 부처에서 논의해 다시 한 번 당정책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확장적 재정운용 등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조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먼저 이날 오후 열린 당정책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와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선 정확한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황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 직접 피해보다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열린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런 노력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품목 국산화 예산을 크게 늘리고 혁신성장 예산에 대폭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중 등 세계 곳곳, 법조계 넘보는 인공지능 시대 로봇변호사 이어 시판사 성큼

에스토니아 정부 AI판사 개발 중
불만시 '인간 판사'에 재심 청구
중 하이난 법정도 AI판사 등장
과거판례 분석, 판결문 등 작성

인공지능(AI)이 판사와 법률자문을 대체할 수 있을까. 재판에서 재판장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한다. 검찰이 제출한 유죄증거가 사실관계의 전부일 리 없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거짓 없는 진실일 수도 없다. 각자가 숨기고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재판장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결론을 내린다. 여기에는 인간의 직관이 개입된다.

AI는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법조인들은 대부분 "하나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원고와 피고, 검찰과 변호인이 쏟아내는 각종 주장과 자료를 기계화된 알고리즘에 집어넣어 객관적인 판단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판결은 법관의 양심과 함께 고도의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사법부 "AI판결문 고민해본 적 있다"
국내 사법부가 AI 사용을 고민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AI)이 유사 판례를 찾아주고 판결문 초고(草稿)까지 써준다.' 1년 전 대법원이 발표한 '2024년 스마트 법원 4.0'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판결문 맨 위에 들어가는 법원과 사건명, 당사자 정보 등 형식적 기재사항은 재판사무시스템이란 법원 내부 전산망 데이터베이스(DB)에서 이미 자동 생성되고 있다. 판사가 직접 쓸 필요 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빈칸을 채워준다.

그러나 지능형 판결문 초고 생성은 한발 더 나아가 주문(主文), 청구취지, 판단 이유 등 판결문의 실질적 기재사항까지 써주는 수준을 목표로 잡았다. 판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법원은 신중한 행보로 돌아섰다. 유사 판결문 검색 및 추천은 몰라도 판결문 초고의 실질적 기재사항까지 자동 작성하는 데는 훨씬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뀐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판사들의 반발과 기술적 구현 어려움"이라고 일축했다.

◆해외 곳곳서 AI판사 등장 '눈길'
해외는 어떨까. 법조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대체 가능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그러나 소송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검색 작업을 하는 수준의 알고리즘 활용작업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북유럽 소국 에스토니아는 AI판사를 개발 중이다. 이 나라 법무부가 정부의 데이터 담당 책임자에



게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로봇 판사'를 설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가 개발 중인 AI 판사는 법률 문서와 관련 정보를 분석해 소액 사건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인간 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소액 사건을 AI에 맡겨 판사의 업무량을 덜어주면서 더 큰 규모나 중요한 재판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중국 하이난 고등인민법원 형사 법정도 'AI 판사'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스템은 판사의 심리 과정에 유사한 사안의 중요 요소를 자동으로 추출해 과거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응용한 판결문이나 관련 법률 문서 등을 작성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래프 구조 법률 지식 기반과 자연어 처리 플랫폼 등 10개 항목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난 고등인민법원 왕 춘바오 부원장은 "오전에만 3개의 재판을 실시하여 각각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효율성이 장점이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법률자문까지 넘본다

국내에서는 변호사와 인공지능(AI)간 법률자문 능력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법률서비스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4면에 계속)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막오른 5G 스마트폰 大戰... 삼성·LG·애플 '격돌'

삼성전자, '갤럭시10' 사전예약 중
LG전자, 내달 'V50S 씽큐' 발표
애플·화웨이도 신제품 출격 대기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의 막이 올랐다. 국내 업체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한 데 이어 LG전자가 내달 신제품을 발표한다. 애플과 화웨이는 9월 신제품을 내놓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노트 10'을 공개했다. 갤럭시노트 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6.3인치 크기에 S펜 등 노트의 특징점을 담은 갤럭시노트 10과 6.8인치의 역대 최대 디스플레이를 갖춘 갤럭시노트 10 플러스(+)로 나뉘며 오는 23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에선 지난 9일부터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다.



갤럭시노트10 아우라글로우. /삼성전자



화웨이 메이트 X. /화웨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에 'S펜'의 움직임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에어 액션' 등 신기술을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부터 갤럭시노트1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공개도 앞두고 있다. 5G 라인업 완성을 통해 전 세계 5G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내달 6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 IFA 2019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발표한다. 모델명은 'V50S 씽큐'로 정해질 전망이다. 상반기 출시된 LG V50 씽큐의 판매 성과를 하반기에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로 분석된다.

신제품은 6.4인치 디스플레이에 올레드 패넬을 스커퍼 진동판으로 활용하는 '크리스털 사운드 올레드(CSO)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4면에 계속)

/구서윤 기자 yuni2514@